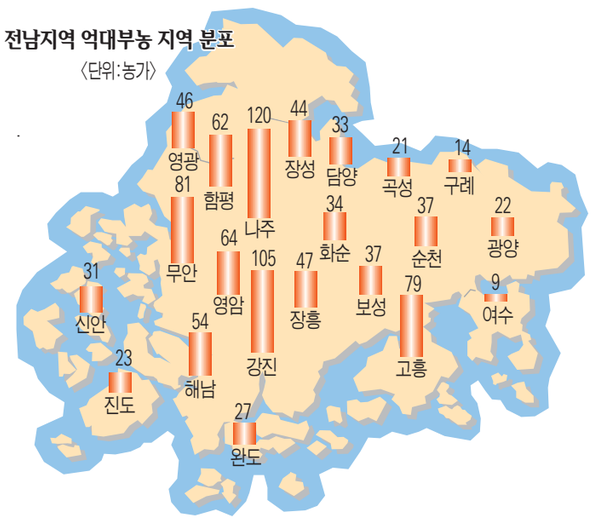
급증하는 억대 부농…농촌에도 희망 있다

■2008 전남지역 억대부농 지역 분포

〈단위:농가〉



강진에서 한우 2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장을재씨는 알콜발효 사료를 이용해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고 있다. 전남지역 부농들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으로 농업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막걸리 한우·컬러 쌀…농업 '블루오션' 이끈다

전남 억대 부농 990가구…1년새 125가구 늘어

축산업이 54%…식량작물·과수·특용작물 順

창조적 아이디어로 승부…'新 부농'의 길 창출

막걸리 한우에 컬러 쌀 농업 '블루오션' 이끈다

강진군 옴천면 장을재(53)씨는 한우에 '막걸리'를 먹이는 독특한 사육법으로 연간 10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막걸리에 한약재 7종을 섞은 알콜농도 5~6.5% 정도의 발효사료를 만들어 한 마리당 하루 3ℓ의 깨끗한 물과 함께 먹이는 방식이다. 송아지를 입식해 500㎏까지는 양질의 조사료를 먹이고 평균 체중 700㎏ 출하시까지 200여일간은 알콜 발효사료를 사용한다.

이렇게 사육하면 육질이 연해지고 고기 맛이 더욱 담백해지며 1등급 출현율이 85%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한다. 1990년부터 30여 농가와 함께 작목반을 구성해 '강진 맥우'(麥牛)라는 브랜드로 서울 유명 백화점 등에 전량 계약출하하고 있다. 1981년부터 한우사육에 뛰어든 장씨는 1990년 우연히 '소에 알콜사료를 먹여 육질을 개선한다'는 짤막한 기술정보를 읽고 일본 축산시험장에 논문자료를 요청·입수해 본격적인 막걸리 한우사육에 나섰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10여년전 귀농한 진도군 지산면 채원준(35)씨는 차별화된 쌀농사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당초 검정쌀을 재배해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재배농가가 늘면서 가격이 폭락,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채씨는 '컬러 쌀'에 눈을 돌려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군 농업기술센터를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영농기술을 배워 검정쌀, 녹색쌀, 붉은쌀, 백진주쌀, 찹쌀 현미 등 이른바 '오색쌀'을 본격 생산, 1억여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전까지는 직거래 방식으로만 판매했으나 향후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해외시장 공략을 모색하는 등 더욱 큰 꿈을 꾸고 있다.

◇ 농업의 '블루 오션'을 찾아라= '부농(富農)'은 농사를 짓는 모든 이들의 '꿈'이다. 그렇지만 시장개방과 유류값 상승 등 농업환경 악화로 농업인들은 2·3중의 어려움속에 처해있다. 이런 가운데 독특한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으로 부자 농부의 꿈을 이루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가격 상승과 사료·비료 등 농자재값 폭등 속에서도 농업소득 1억원 이상(총매출에서 경영비를 뺀 순소득 기준) 고소득을 올린 농가는 모두 990농가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5 농가나 증가한 것으로 분야별로는 기업적 경영을 통한 고소득 창출이 가능한 축산업이 533명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축산에 이어 식량작물과 채소분야가 각각 187명(18.8%)과 108명(10.9%)였으며 과수 73명(7.4%), 특용작물 32명(3.2%), 화훼 26명(2.6%) 순이었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787명(79.5%)였으며, 2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194명, 10억원 이상은 9농가였다.

시·군별로는 나주시가 120농가로 가장 많았으며 강진 105명, 무안 81명, 고흥 79명, 영암 64, 함평 62명, 장흥 4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억대 부농'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을 살펴보면 2006년말 850명에서 2007년 865명, 2008년 99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재배방식과 작물개발 ▲고품질화에 따른 부가가치 향상 ▲생산성 증대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등으로 타농가보다 한단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이러한 농업분야의 '성공신화'에 이끌려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귀농(歸農)하려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전남도는 '귀농 안정정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진·해남 등 각 지자체도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귀농 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 부농의 길 창출 = 전남도는 고소득 농업인들을 희망 메신저 및 사례발표 강사로 적극 활용해 농업인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 넣고,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강진 등 전남지역 각 지자체도 부농육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고소득 농민을 육성, 농업과 농촌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생명의 땅 1억농 CEO(최고 경영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2012년까지 매출액 1억원, 순소득 5천만원 이상인 농가를 현재 560여 곳에서 1천 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강진군은 지난해 농업예산으로 477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25.4% 늘린 59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지식인과 농업인대상 수상자 등 스타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고, '귀농인 지원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고소득 농업인들 모임인 '(사)창조농업인회'역시 일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성공비결을 전파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l@

"회원 650명 성공 비결 전파"

창조농업인회는

지난 2007년 5월 전남지역 고소득 농업인들이 전남 농업과 농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짐하며 만든 모임이다. 현재 회원 수는 650여명.

회원들은 농업분야 신기술 및 성공사례를 상호 교류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로 지역농업 및 농촌발전의 리더로 육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연 1회 연찬회를 개최해 회원간 정보교환과 함께 일반 농업인과 각 품목별 작목반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파하고 있다.

장형태(55·구례 대한종묘원 대표·사진) 창조농업인회 회장은 "회원들은 자기 분야에서 나름의 영역을 구축한 최고의 전문가"라며 "올해도 전·후반기로 나눠 각 지역을 돌며 회원들이 가진 노하우를 일반 농업인들에게 전달해 전남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